

새롭게 출발하는 달
신년감사주일

꿈이 있는 교회

성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사람이 볼 때 나는



주님이 볼 때 나는



주님 앞에 설 때
진짜 나를 알게 된다.

“성령님의 역사사가 감격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영양서 2:9)
“새로운 영생을 위하여, 신약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

성김이 있는 교회 church of servants

당신들을 위하여



예 배 WORSHIP

January 3,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사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김훈태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창세기 11:31-12:9 2021년 잘 시작하기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찬송 552장 - 아침 해가 돋을 때 (통일찬송 358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최내권 집사, 구은강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보냄의 찬양 / 찬송 384장 - 나의 갈길 다 가도록 (통일찬송 434장)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이사야 43:18-21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월은 “새롭게 출발하는 달”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1. **신년감사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새해를 믿음과 소망으로 천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 합시다.
2. 지난 목요(31)일에 **송구영신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해를 감사하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헌신한 교우들에게 감사합니다.
3. **공 예배** 주정부의 권고로 zoom 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현절**기간 입니다.
5. **2 세 신앙교육** E-Learning 의 환경 속에 있는 자녀들의 학업과 신앙 교육을 위해 기도합시다.
6. **일곱째 해** 사역 2021 년 치유와 회복과 나눔의 사역들이 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도약하는 믿음과 가정, 교회와 사역이 되도록 서로 함께 섬깁시다.

1월의 사역 - 신년감사주일(1/3), 제직/공동의회(17)

♥ **생일 축하** ♥ 영준 Andrew(7) 이진아(8) 강현 Caleb(20) 정홍렬(21) 민성 Joseph(26)
윤정 Jenny(28) 혜영 Jessica(29)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 도 제 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예 배 섬 김 이

주일예배기도	1/3	1/10	1/17	1/24
	김훈태집사	최선운집사	고순제전도사	최내권집사
금요일예배기도	1/8	1/15	1/22	1/29
	오정은집사	박진성집사	구민집사	구은강집사
주일헌금위원	1/3	1/10	1/17	1/24
	최내권집사/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최선운집사	
주일안내위원	1월			
	최내권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2020년을 잘 마치는 법 / 사도행전 1:6-14

2020년 한해를 마치며,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첫째, 예수님과 함께 했는가. 둘째, 삶의 방향이 이 땅이 아닌 천국을 향하고 있었는가. 셋째, 천국이라는 방향에 맞추어 열심히 달려왔는가. 지금도 그러한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한다.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면, 이제부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 천국을 향하다 주저앉았거나 방향을 잃었다면, 다시 일어나 천국을 향해 더 열심히 달려야 한다. 아픔과 눈물이 되었던 일들, 넘어졌던 경험들, 신앙의 진보를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자.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2021년 잘 시작하기 / 창세기 11:31-12:9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변화되고 성숙해지며

아브라함은

1.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누리며

2.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인생여정을 즐기며

3.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4.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벗이 됨

힘차게 믿음으로 이 복된 2021년 새해를 믿음과 순종으로 달려가자

2021년 잘 시작하기 / 창세기 11:31-12:9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변화의 길은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달려갈 비결을 가르친다. 알지도 못한 채 아브라함의 신앙여정은 갈대아의 우르서 시작되었다. 우리도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먼저 부르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고향 갈대아의 우르가 아닌 하란에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듣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떠난다. 본격적인 신앙여정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향한 신앙여정을 시작하였는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복된 길, 천국을 향한 길에서 머뭇거리는가. 이 길을 늦추지 말자. 목적지뿐 아니라 그 과정도 복되기 때문이다.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는 변화된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과 같다.

하지만 이 변화는 시행착오를 동반한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 않는다. 아브람은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두 번이나 거짓말을 했다.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믿지 못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그 결과 극심한 가정 분란을 겪었다. 이러던 아브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 더 이상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게 됐다. 심지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과 신뢰를 보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까지 그 믿음이 자랐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랄수록 그의 인간관계도 성숙하여졌다. 롯과의 관계를 통해, 나그네를 섬기고 대접함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간구는 그의 이웃에 대한 섬김과 사랑을 보여 준다.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지금 우리도 가고 있다. 우리도 약속의 땅 저 천국을 향하여 간다. 이 길은 복된 길이다. 이 길이 더욱 더 복되기 위해서는 나의 변화가 필연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까지 변했듯이, 사람들을 향하여 더욱 성숙하게 변했듯이 우리도 변해야 한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까지 변해야 한다. 2021년 한해도 힘차게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또 변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삶과 신앙

당신의 진짜 모습은?

-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다.

예수님은 위선적인 태도를 굉장히 혐오하십니다.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던지시는 추상같은 책망을 들어보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 23:27,28

이 이상 모욕적인 표현이 또 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 즉 겉만 번지르르한것에 대해 극심한 혐오를 표현하셨다. 구약에서도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예레미야서 3 장이다.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렘 3:4,5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는 모습이다. 겉으로는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 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표현하지만, 당시 백성들의 실제 삶을 보건대 이것이 너무나 가식적이고 입에 발린 소리란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다.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면 어떻게 하겠는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하나님께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예레미야 3 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대하듯이 하신다면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가식적인 태도를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딤후 3:5

밝은 조명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내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다. 설교를 전하는 강단 위에서는 마치 모범 답안을 전하는 것과 같다. 내 진짜 모습을 보는 사람은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내와 아이들밖에 없다. 사실 그것도 내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있다. 아내와 세 아이조차 보지 못하는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 않기 위해 자꾸 이렇게 되뇌는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바로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는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런 외식하는 태도를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이 굳어지면 삼손처럼 눈 뽑히고 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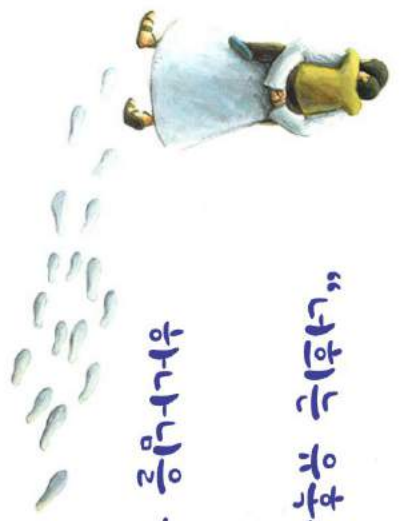
식품을 살균하는 방법 중에 ‘저온 살균’이라는 게 있다. 이것을 ‘저온 간헐살균’이라고도 하는데, 왜 이렇게 부르는가 하면 균을 죽이기 위해 고열을 가하면 대부분의 세균은 죽지만 아무리 열을 가해도 죽지 않는 균이 있다고 한다. 이미 포자를 형성하여 그 안에 숨어 있는 균들이 바로 그런 균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을 가하여 어지간한 균들이 다 죽고 나면 균들이 좋아하는 온도인 상온에서 하루 정도 방치하여 숨어 있던 균들이 본능적으로 번식을 위해 포자를 깨고 나오도록 기다린다고 한다. 그러면 그때 다시 열을 가하여 균을 죽이는 것이다. 이것을 몇번 반복하여 세균을 모두 죽인다고 한다.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다. 포자를 형성하여 그 안에 숨어 있으면 안 된다. 은밀한 행실을 끄집어내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영적인 저온 간헐살균의 시간인 줄 믿는다.

그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을 의식하여 사람들 눈에 보이는 부분에만 신경 쓰는 위선을 살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포자를 형성하고 숨어 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저온 간헐살균으로 말미암아 다 끄집어내지고 십자가 앞에서 멸균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 이찬수 목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에베소서 4장 22~24절

“...이런 일을 행하지 말고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날지니 새 사람으로 행하라. 이는 악을 행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며 화평을 행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일을 행하며 온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일을 행하며 온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일을 행하라.”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숙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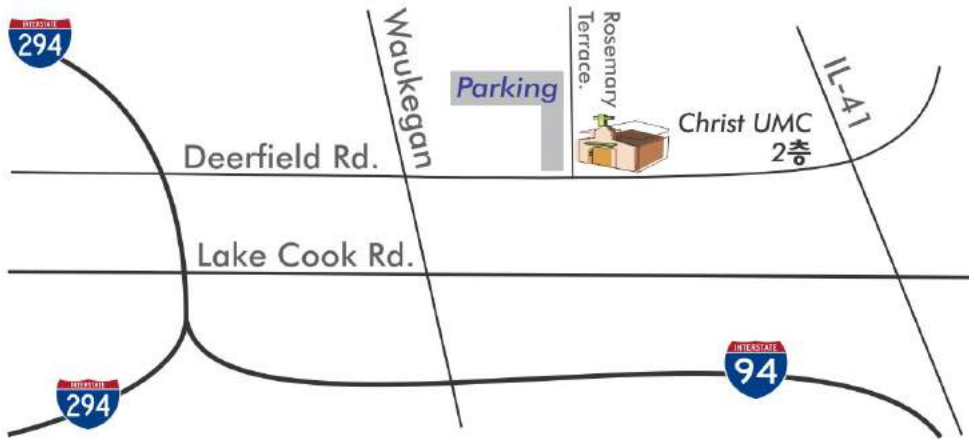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